

| 특별인터뷰 |

충북충친회장 권태호 (전)춘천지검 검사장

대담 : 권계주 대종원부총재



권태호 회장

문1. 바쁘신 중에도 귀한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을 근황은 어떠하신지요?

대종원에서 충청북도 충친회를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해 4월 13 선거 이후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 변호사로 복귀하여 지역주민들의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수인 38년간 검사로 근무 후 퇴직하여 상대적으로 형사사건에 강하지만 민사(매매 임대 등 각종 재산분쟁) 행정(조세, 운전면허, 각종 인허가) 가사(이혼, 상속) 기타(귀하 등 공적취득 등) 업무도 다년간의 공직근무 경험을 활용하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찾아주시는 주민들의 법률지원을 해주는 사이사이 틈을 내어 지역의 주요 행사나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만나 민생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2.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축친님의 공직수행시의 좌우명이나 철학이 있으시면 소개 바랍니다.

1977년 대학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의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1979년 9월 검사로 임관하여 전국 각지로 전근을 다니면서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 검사장 직무를 수행 하고 2015년 3월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40년간의 공직생활동안 “진인사 대천명”을 좌우명으로 삼아 모든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공직에 임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태도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 또 각 중 연구 활동이나 동호회 등에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한 사고와 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 였는지 대한민국 역사상 4번째로 19년 만에 지방대학 출신으로서 감사장급으로 승진하는 영예도 누렸습니다.

문3.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소개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최근 50-60년 동안 세계 역사에서 가장 빠른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저력을 계속 이어서 대한민국과 사회가 지속 발전을 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미력이나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충북 협의회 회장으로서 다방면에 서의 양극화 해소,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 청년과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건강과 복지 제 도 확충 등에 연구와 지원활동을



하고자합니다.

문4.홍조근정훈장 및 법조 봉사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소개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건강하게 살아있고 40년 공직을 무사히 마치고 명예퇴직 하고 고향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가족 종친 등 여러분들의 지도 성원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주위의 성원에 보답도 하고 이제까지 제가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지역과 사회에 환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본연의 업무인 주민들을 위한 법률지원과 봉사에 최선을 기하며, 지역과 사회의 발전에 참여하고 시간을 만들어 봉사도 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명예퇴직 시 마음먹은 초심을 유지하며 일관성 있게 활동하고자합니다.

문5. 한강이님의 내륙지역으로서 충북충친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간략히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동권씨의 연고지 안동도 내륙이고 충청북도도 내륙이고 안동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 안동권씨 충청북도 충친회가 구성 활동한지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활동이 사실상 정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공직을 퇴임하고 고향인 청주에서 활동하던 중 그런 사실을 알고 청주시 충친회 청주시 청 장년회 청안회 등과 협의하여 충청북도 충친회를 재건하기로 하였고 2015년 4월 청주에서 개최한 안동권씨 문화축전에 참가 한 시군 충친회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5. 8 경 부족 한 제가도 충친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충친회장을 맡은 후 일을 열심히 하시는 권혁만 사무총장님과 함께 시군 충친회 활동상황을 점검하며 활동이 미약한 곳은 활성화시키고 없는 곳은 새로 조직을 할 수 있도록 일 할 분을 찾아 도와 주어 조직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정기모임을 갖고 각 시군 충친회 순방 격려 및 안동권씨와 연관된 역사 문화 탐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6. 안동권문의 후에서 직계선조(가문 내력)소개와 가족소개를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부친 권중복(추밀공과 32세손)남이나 조부 권병문(추밀공과 31세손)님은 고향

에서 농사 를 지으시며 사시다가 작고 하셨습니다. 부친께서는 종회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안동 태사로 향사나 파주 장단 추밀공 정헌공 예참공 좌윤공 시제에도 꼭 참석하셨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부친을 따라 여러 번 장단 시제 등에 참여하기도 했고 정헌공 시제에 아헌관으로 참여하여 잔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배우자와 2녀 1남을 두었습니다. 두 딸은 선생님과 의사인데 시집을 갖고 이들은 호주번호사인데 엘리전자 법무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미혼입니다.

문7. 평소 즐기시는 취미는 무엇이며 건강 관리 비결이 있으시다면?

저는 잘 하지는 못 하지만 취미로 바둑과 골프를 해왔습니다. 또 종종 동창회 등 모임에서 하는 등산도 참여하고 한때는 테니스와 색소폰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5분 정도 온 몸으로 근절을 하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절을 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 할 수 있고 전신운동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8. 끝으로 전국의 충친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대종원의 발전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안동권씨 종친 여러분! 며칠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복되고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고 정유년 내 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15대 성씨에 속하는 100만 족친의 구심체인 대종원을 중심으로 전 종친이 소통과 화합하고 대 소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안동권씨 가문의 발전을 이루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올립니다.

권태호변호사는 청주대 법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19회(연수원9기)합격 후 대전고검, 청주지검 인천지검차장검사를 거쳐 춘천지검 검사장을 역임한 후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로서 청주지역발전에 헌신하면서 권문발전에 적극 봉사하고 있다. 홍조근정훈장과 법조봉사대상을 수상했다.

布衣 권필과 政丞정철, 그 지극한 師弟之情



포의(布衣)는 무명의 서생을 말하고 정승(政丞)은 총리급의 고관을 일컬으니, 이 ‘권필’과 ‘정철’ 두사람의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인생역정은 우리 후손들이 새겨 둘만한 가치가 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정철(1536-1594, 58세) 서울 출신, 좌의정(부총리),가사문학대가, 명종의 소꿉친구, 누이들이 왕자의 정부인, 형은 행정부 핵심인 인사대권의 보유자 ‘이조정랑’, 우수한 두뇌의 수재, 이러한 배경이나 능력이나 출세길이 창창한 완벽한 금수저, 그러나 그렇지만 않은 것이 그의 굴곡진 인생은 극적이니, 결국 1954년 선조 임금에게 이용 당하고 좁아터진 강화도에서 아사하는 신세로 까지 되고만다.

권필(1569-1612, 44세) 고양 마포강변 출신, 벼슬은 1차 초시, 2차 복시도 합격할 뻔했으나 글자 하나 실수로 낙방, 이는 ‘촉취’로서 요즘의 ‘예’로 비유하자면 ‘朴正熙’를 ‘朴正姬’로 쓰는 실수를 범한 꼴이다. 나중에 친구들이 생계나 이으라고 추천하여 말단하급의 ‘동통교관’이 되기는 하지만 출근 점고하고 인사하는게 싫어서 금방 사표를 내고 평생 야인으로 지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철의 한글 가사문학은 당시에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으나, 지금의 평가는 대문장가로 한국의 ‘셰익스피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만일 그의 그 작품이 없었더라면 조선의 문학은 황량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인생도 마지막 몇 년을 더럽혀서 천하에 나쁜 인간으로 기억되게 만들어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고있다.

누구든 그 마지막이 중요하나니 요즘 매스컴을 장식하는 특검이나 청문회에서 지저분한 변명을 하는 늙은이들을 보면 더더욱 그런 느낌이니, 누구나 종말의 시점은 현은 맞다라고는 하지만 정철의 그 몇 년은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 없다.

먼저 그의 일생을 보자면, 장자 왕이 필 아이(明宗)와 같이 놀던 복된 시집은 잠깐, 10세에 인종사망후 인종의 후궁인 누나의 몰락, 집안은 풍비박산 그 뒤 계림군 사건으로 형은 맞아죽고 매형은 거열형으로 죽고, 이에 대한 보복인지 ‘트라우마’인지 그가 西人의 거두로 말년에 1000명을 죽이는 정여립 사건 특별검사로 활약하다가 결국 악명만 남기고, ‘사미인곡’에서 실컷 칭

송해준 선조임금에게는 토사구팽 당하고 임진왜란 직전 재등장하여, 뒤 쫓아 하러다가 다시 강화도로 잠적, 거기서 사망, 당시는 임진왜란 발발로 임금도 도망자신세이니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워낙 청렴하고 강직하니 그냥 죽어갔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권필은 조선3대 문장가로 이름을 날리지만, 맨날 술과 낭만으로 일생을 보내고 강직한 풍자시로 일관하고 권력자에게 대한 삿대질은 다반사였다. 그러던 중 벌르고 있던 임금(광해군)에게 제대로 걸려들고, 그 문제의 작품, 미움을 산 공류시(宮柳詩)의 주인공 임금의 처남 유희분을 보고 노골적인 명멸적 언사, 이걸로 아바 죽음으로 직행하는 과정으로, 광해군은 하도 권필이 글로써 대어드니 두고보자 하다가 공류시 한 편가지고 그냥 처 죽일 기세나 백사 이항복이 ‘상감이 이지를 죽이면 두고 두고 쪼잔한 임금으로 욕 먹을 것’이라고 말하며 겨우 말려서 귀양가는 걸로 낙착, 그러나 동대문 밖에서 주는 송별주를 주는 대로 마시고 그 다음날 매맞은 상처가 도져서 사망한다.

여기서 정철에 대한 평가는 西人東人이 다 극과 극으로 평가가 틀리고 남인 계열인 권문의 평가는 더욱 나쁘다. 그러나 그가 강직하고 청렴하며 낭만적이지만 자격지심이 심하고 권력 추구에 대한 열망이 병적이어서 결국 ‘정직하면서 덕이 부족하면 잔인해진다!’는 꼴이 된 것이다. 현대에도 비록 청렴하다고는 하지만 그릇된 충성심으로 국가를 망치고 주군을 죽인 인물이 어디 하나 둘인가 말이다.

‘鄭澈이 빨리 죽어 방당의 분란을 줄인 공은 있으나, 늦게 죽어 전쟁에 대비치 못한 잘못이 있다,’ 할 정도로 세인은 혹평을 했다.

그러면 권필을 어떻게, 조선의 이단 야(야)? ‘허균’과 동감으로 그이 처럼 급진적이진 않았으나 우정은 돈독하고, 낭만과괴벽의 풍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여, 전국을 다니며 詩才를 날려서 부안의 이매창, 전라도의 김덕령 장군에 관한 꿈속 재회의 詩등 기행을 남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필이 20대에 50대의 정철이 함경도로 귀양가는 것을 따라가서 만나고 ‘師弟之情’을 맺는 것인데, 이 때 정철은 ‘아-神仙을 보고 귀양을 가니 가벼운 마음일세-’라고 하고 후에 권필은 24세 이후 사망

시 까지 강화에 머무르며 후학을 가르치며 그 또한 ‘송회갑’이라는 제자와 같은 인연을 맺으니 세상사 ‘因緣果’의 법칙이 맞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다.

이때 3년 정도 강화와 고양군 신원리 마을에 기거하던 정철과 더욱 가까워져서 사제간으로서 교유를 가진다. 정철의 성주본 가사집에는 권필의 ‘송강묘를 지나며’라는 시가 윗장에 있었다. 당시 송강묘는 가족묘인 고양에 있었고 70여년 뒤 진천으로 이장해서 지금은 아무 연고도 없는 진천이 송강의 명소로 떠 오르고 있다.

권문의 奇才 권필이 송강을 스승으로 삼아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위했다는 것은 비록 권필이 당파로 西人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송강의 마지막 정여립 사건의 과오를 어느 정도 덮어주고 있고 그의 본 모습이 그렇게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권필이 송강의 묘를 지나며 느낀 감정을 시로...

과송강묘유감(過松江墓遺感)
空山木落雨蕭蕭 相國風流此寂寥
惆悵一盃難更進 甚無歡曲即今朝
빈 산엔 잎이 지고 꽃은 비만 내리는데,

재상의 풍류로움이 이제는 적막하구나.

슬프다 한 잔 술을 다시 권키 어려우니

옛날의 그대 노래가 바로 그대로구려.

그리고 정철의 시 장진주사, 권필과 정철은 술로서 인생을 마감 한 것은 공통적이다.

‘한잔 먹세그려 또 한잔 먹세그려 꺾어 산(算) 놓고 무진 먹세그려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여 줄이어 메어가나 유소보장(流蘇寶帳)에 만인(萬人)이 울어 예나...’

아- 이제 송강의 님이 서린 고양시 공릉천변에 송강의 80여개의 ‘송강가사’ 詩稿가 즐비하고, 그 1호는 권문이 세우게 된다면, 행주산성공원에 우뚝 선 권필의 시비와 다정히 마주하리라! 이제 작금의 혼탁한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들과 같은 청랑갑 넘치는 大人輩들의 출현을 고대하여 마지 않는 것이다.

- 끝 -
(자료제공: 권오철 기자)



왼쪽부터 권오운 사무총장, 권태호 충북충친회장, 권계주 부총재

종보발전을 위한 종보대금 납부안내

평소 권문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안동권씨 종보를 사랑해 주시는 애독자 제위의 가정에 정유년을 맞아 발전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종보의 알찬내용으로 후손들이 열선조들의 혁혁한전통과 숭고한 사상을 잊지않고 승조본의 전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문의 백년대계를 위해 백만족친들의 성원이 필요함을 당부드리면서 종보대금의 납부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금납부는 종보발전과 승조보본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 종보대금 : 1년 12회 2만원 ● 평생구독 : 종보사에 문의
광고·종보대금 계좌: 국민 033237-04-006941 농협 317-0009-7471-41
예금주 안동권씨대종원